

Commissioned by Yong-in City Choir, Conductor Han Hyo-Jong

무언으로 오는 봄

for SATB, with piano accompaniment

박재삼 시
조혜영 곡

느리고 차분하게 ♩ = 80

p rit. *a tempo* *mp*

Soprano

Alto

Tenor

Bass

Piano

6

S

A

T

B

Pf.

(8va)

11 *p*
S Mm
A *p*
Mm
T *p*
Mm
B *p*
Mm
Pf. *p*
(8^{va})

16 *rit.* *temp.* *mp*
S *p* *press.* 3
Mm(or우) Mm
A *p*
Mm(or우) Mm
T *p*
Mm(or우) Mm
B *p*
Mm(or우) Mm
Pf. *rit.* *a tempo* *mp (bring out)*
(8^{va})

무 라고 말 을 한 다 는 것 은 무 라고 말 을 한 다 는 것

21

S *mp*
은 천지신명께 속스럽지 않 - 느 나

A *p*
Mm Mm

T *p*
Mm

B *p*
Mm

Pf. *p*

26

S *poco rit.* *a tempo*
참 된 은 그 저 목 목 히 있을 뿐 호 들 갑 이 라고

A *p* *mp*
Mm Mm Mm

T *p* *mp*
Mm Mm Mm

B *p* *mp*
Mm Mm Mm

Pf. *p* *poco rit.* *a tempo* *mp*

31

rit. *mp* *a tempo*

S
는 전 연 없 네 - 뭐 라고 말 을 한 다 는 것

A
말 을 한 다 는 것

T
8
- - - - - 뭐 라고 말 을 한 다 는 것

B
- - - - - 말 을 한 다 는 것

Pf.
31 (8va) *rit.* *tempo* *mp*

35

S
은 뭐 라고 말 을 한 다 는 것 은 천 지 신 명 께

A
3
뭐 라고 말 을 한 다 는 것 은 천 지 신 명 께

T
8
은 - - - - - 뭐 라고 말 을 한 다 는 것 은 - - - - - 천 지 신 명 께

B
은 뭐 라고 말 을 한 다 는 것 은 천 지 신 명 께

Pf.
35

39

S
A
T
B

썩스럽지 않 - 느 나 참 된 것

Pf.

mf

mf

mf

mf

mf

43

S
A
T
B

은 참 된 것은 그저 묵묵히 묵묵히 있

은 참 된 것은 그저 묵묵히

은 참 된 것은 그저 묵묵히

은 참 된 것은 그저 묵묵히

Pf.

mp

p

mp

p

mp

p

mp

48 *mp* *rit.* *a tempo*

S
을 뵈 - 호 들 갑 이 라 고 는 전 연 없 네

A
mp *p*
있 - 을 뵈 우

T
mp *p*
있 - 을 뵈 우

B
mp *p*
있 - 을 뵈 우

Pf.
8va *rit.* *a tempo* *p*

53 *p*

S
Mm

A
p
Mm

T
p
Mm

B
p
Mm

Pf.
8va

58 rit.

S

A

T

B

Pf.

8

말

음

62 Piu mosso ♩=92

S

A

T

B

Pf.

8

Mm Oh Mm Oh Mm

Mm Oh Mm Oh Mm

잘 함 으 로 써 - 우 선 은 그 럿 짜 해 보 이 지 만 그 무 지 무 지 한

Mm

67

S Oh Mm Ah 그 무 지 무 지 한 추 위 를 *mf*

A Oh Mm Ah Ah *mp*

T 추 위 를 넘 기 고 Ah *mp*

B Oh Mm Ah *mp*

Pf *mf*

72

S 넘 고 사 방 에 봄 빛 이 사 *f* *cresc. e poco accel.*

A 사 방 에 *mf* *cresc. e poco accel.*

T 사 방 에 *mf* *cresc. e poco accel.*

B 사 방 에 *mf* *cresc. e poco accel.*

Pf *f* *cresc. e poco accel.*

77

S

A

T

B

This section of the score is not included for copyright protection.
© Copyright 2026 for ALL COUNTRIES by Santa Barbara Music Publishing, Inc.

77

Pf.

82

S

A

T

B

f *mp* **Tempo I** ♩ = 80

데 - 할 말 이 가 장 많 - 은 듯

데 - 할 말 이 가 장 많 - 은 듯

데 - 할 말 이 가 장 많 - 은 듯

데 - 할 말 이 가 장 많 - 은 듯

Pf.

f *mp* **Tempo I** ♩ = 80

mp *mp*

87

S
한 그것을 그 냥 눈 부 시 게 아 름 답 게 만 치

A
한 그것을 그 냥 눈 부 시 게 아 름 답 게 만 치

T
한 그것을 그 냥 눈 부 시 게 아 름 답 게 만 치

B
한 - 그것을 그 냥 눈 부 시 게 아 름 답 게 만 치

Pf.

92

S
rit. a tempo
p mp
르 란 이 엄 청 난 - 비 밀 을

A
mp
르 란 이 엄 청 난 - 비 밀 을

T
p
르 란 이 엄 청 난 -

B
p
르 란 이 엄 청 난 -

Pf.

poco rit. a tempo
mp

97 *mp* rit. *a tempo* *p*

S
- 고품 고품 이 느 껴 보 게 나 -

A
- 고품 고품 이 느 껴 보 게 나 -

T
8 비 밀 을 고품 고품 이 느 껴 보 게 나 -

B
비 밀 을 고품 고품 이 느 껴 보 게 나 -

Pf. rit. *a tempo* *p* 8^{va}

102 rit.

S

A

T

B

Pf. (8^{va}) rit. *pp*

작곡가에 대하여

조혜영(Hye-Young Cho, 1969년생)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작품은 국내 거의 모든 합창단에서 연주되었으며, 다수의 주요 전문 합창단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왔다. 특히 2014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합창심포지엄(World Symposium on Choral Music, WSCM) 개막 연주회를 위한 **〈Te Deum〉**을 위촉받아 작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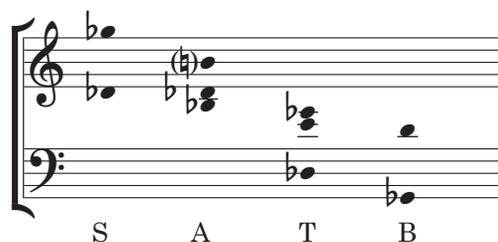
조혜영은 인천시립합창단, 안산시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의 상임 작곡가를 역임하였으며, 한국합창작곡가협회(KCCA) 회장을 지냈다. 또한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강원대학교에서 후학을 지도하였다. 한양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하여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시인과 작품에 대하여

박재삼(1933-1997)은 섬세한 서정성과 깊은 전통적 정조를 통해 한국 현대시의 정통을 이어 온 시인이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한국적 정서인 한(恨)의 미학으로 형상화하며, 20세기 후반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표현보다는 절제와 침묵, 그리고 시적 여백을 통해 깊은 정서를 전한다.

이 합창곡은 박재삼의 시 「무언으로 오는 봄」에 바탕을 두고, 소리 없이 다가오는 봄이 찬란한 빛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중심적인 역설을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가사 없는 허밍으로 시작되는 합창과, 시의 이미지를 풀어내듯 전개되는 피아노 도입부는 '무언(無言)'이라는 개념을 작품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곡은 전반적으로 고요하고 절제된 흐름 속에서 진행되지만, 점차 앞부분과 대비되는 절정으로 나아가며, 소리 없이 다가왔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봄의 힘을 밝힌다. 이 작품은 아무런 선언 없이 이루어지는 변화, 말없이 완성되는 변화가 지닌 자연의 신비로움을 담아낸다.

범위



무언으로 오는 봄

박재삼

by Jae-Sam Park (1933-1997)

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천지신명께 속스럽지 않느냐
참된 것은 그저 묵묵히 있을 뿐
호들갑이라고는 천연 없네
말을 잘함으로써 우선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무지무지한
추위를 넘기고
사방에 봄빛이 깔리고 있는데
할 말이 가장 많은 듯한
그것을 그냥
눈부시게 아름답게만 치르는
이 엄청난 비밀을
곰곰이 느껴보게나